

가능한 전기집진방식, 전기집진방식 성능을 향상시킨 Electric HEPA 필터, 냄새제거 방식도 활성탄에서 광화학을 접목한 광촉매 필터가 다수 출원되고 있다. 아울러 항균과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은나노, 제균 Ion, 아로마 향 같이 기능이 추가된 다양하게 출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물신축 시 실내공기의 청정, 환기 및 냉방기술이 복합된 빌트인 형태의 특허출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11%(25건)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절전운전, 황사모드, 냄새제거모드 같이 공기청정기의 제어방법에 관한 출원은 3%(7건)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한편, 공기청정기 시장은 사업모델이 임대서비스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샤프전자는 공기청정기 임대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였고, 2006년형 공기청정기(모델명 FU-580K)부터 임대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는 웅진코웨이와

삼성전자에 이은 것으로 공기청정기 3위권인 샤프전자까지 가세함으로써 공기청정기 시장에 임대 서비스가 바른 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일본의 샤프전자가 실시하는 임대 판매는 35만원 등록비에 월 2만원을 지불하면 필터교환 및 청소, 기기점검 같이 공기청정기를 대형 관리해 주는 형식이다. 계약기간은 4년으로 최초 1년은 의무사용 기간이며, 2개월에 한 번씩 청소 및 기기점검을, 필터교환은 1년에 2회이다.

이에 앞서 웅진코웨이는 '코디'라는 전담 직원을 통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2005년 연말부터 가전제품 홈케어 서비스의 연장선에서 삼성전자 서비스를 통해 2개월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해 공기청정기 제품 상태를 점검하고 필터를 교환해 주고 있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40만대 규모로 이 중 임대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이동통신동향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199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6월 현재 3,938만 명을 넘어섰고 이동전화 보급률은 81.40%를 기록하고 있다. 이동통신 산업은 업의 특성상 국가 기간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서비스 초기 총 다섯 사업자로 시작한 이동통신 산업은 2001년 KTF가 한솔PCS를 인수합병하고 2002년에는 SKT가 신세기통신을 인수합병하면서 세 사업자간의 경쟁 체제를 이어오게 되었다. 2004년 1월에는 번호이동제가 시행되면서 가입자들의 사업자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불법 영업활동으로 인해 2004년 6월부터 8월까지 LGT(30일), KTF(30일), SKT(40일)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2006년 3월에는 이동통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위치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재허용 되었으나 계속되는 불법보조금 지급에 따라 2006년 6월에는 이동통신사에 최대규모인 7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SKT와 KTF가 WCDMA 사업자로 선정되어 3.5세대 이동통신이라 불리는 HSDPA(High Speed Data Packet Access)를 2006년 5월과 6월에 각각 런칭하면서 기존의 음성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통신 중심으로의 지화를 꾀하고 있다. 반면 LGT는 CDMA2000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채산성을 이유로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로 배정받은 2GHz 대역 투자를 포기하고 대신 기존의 1.8GHz 대역에서 리비전A 투자를 통해 3세대 사업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연도별 이동통신 가입자 추이

이동전화 가입자 지속적인 증가, 시내전화 가입자 증가 정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동전화는 7.17%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시내전화는 0.22%의 낮은 연평균성장률을 보이며 정체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음성통신 수단이었던 시내전화의 가입자 증가율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지면서 이를 이동전화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03년과 2004년 시내전화 가입자는 전년에 비해 각각 2만6천명, 300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같은 기간 이동전화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해 전년에 비해 각각 3만 9천명, 8만9천명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지배적 사업자 정책규제에 따른 가입자 추이변화

2001년 KTF는 한솔PCS를 합병하였고 2002년 SKT는 신세기통신을 합병하여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는 SKT, KTF, LGT 세 사업자로 재편되었다.

2000년과 2001년 SKT 가입자는 합병 전 신세기통신 가입자 351만명과 332만명이 포함될 수치이다.

SKT는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조건으로 2001년 6월까지 시장 점유율을 50%이하로 낮추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 신규가입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지 못한 결과 200년 가입자수는 전년 대비 4.81%의 가입자 증가율을 보여 KTF 12.20%, LGT 7.71%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4년 1월 이동전화 번호 이동제가 시행되면서 SKT 가입자의 KTF, LGT로의 이탈이 진행되면서 SKT 가입자 증가율이 감소했고 반면 번호 이동제의 수혜자인 KTF와 LGT의 가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동전화 번호 이동제는 지배적 사업자 규제정책에 의해 2004년 1월 SKT 가입자의 KTF, LGT 이동이 허용되었고, 2004년 7월부터는 KTF가입자의 SKT, LGT 이동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2005년 1월 부터는 이동통신 3사간의 자유로운 번호



이동이 허용되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가입자들은 점유율 추이를 보면 SKT와 신세기통신의 합병조건에 따른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에 따라 SKT 점유율이 하락한 반면 KTF 점유율이 증가하였고, LGT는 전년과 동일한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200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SKT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2003년까지 SKT 점유율은 증가하였고 반면 KTF와 LGT의 점유율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2004년 번호 이동제는 SKT 점유율은 낮추었고 이에 따라 KTF와 LGT의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LGT는 번호 이동제의 영향과 모바일뱅킹과 같은 신상품 마케팅 정책을 통해 2004년부터 점유율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시작된 KTF, LGT 가입자들의 SKT 번호이동으로 인해 7월 한 달에만 약 28만 명의 가입자들이 SKT로 번호이동 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내려진 SKT의 영업정지로 인해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이 중지됨에 따라 8월, 9월의 번호 이동제 가입자가 급감하였다. LGT는 6월말부터 7월말까지, 그리고 KTF는 7월말부터 8월말까지 영업정지로 인해 번호이동 신규가입 고객이 급감하였다.